

전남 시·군의회 예산삭감 후폭풍

순천 77억·화순 144억 삭감...내년 사업 불투명 예산 감시? 집행부 견제? 시민단체·주민 비난

올해 출범한 민선 5기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내년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거 의회와 달리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와 갈등 양상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순천시와 단체장이 무소속인 화순군은 내년도 본 예산중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허투루 사용되는 예산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냐, 갈등에서 비롯된 집행부 사업에 대한 지나친 제동이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애초 예산안에서 77억 원을 삭감한 6400억원 규모의 2011년 순천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삭감 예산 중에는 순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자원봉사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자원봉사단체들이 공동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 41개 자원봉사단체는 지난 24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시대가 원하는 시민운동이자, 더불어 사는 활동인 자원봉사를 격려해 해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는 시의회의 행태에 분노한다"라며 올해 위유수 해외연수비

로 3900만원을 사용한 시의원들을 질타했다.

앞서 순천시는 삭감예산의 30% 이상이 정원박람회 예산인데다, 설립이 시급한 박람회조직위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금 예산 5000만원까지 삭감되면서 시의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또 모 시의원이 박람회조직위 출연금 삭감 이유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위가 공무원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예산 삭감 파동이 확산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최근 내년도 본 예산 심의를 통해 144억원을 삭감한 382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144억원의 예산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다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어서 집행부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화순 군의회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 9억원 ▲노인 부식비 지원 7억6000만원 ▲출산 도우미 1억4000만원 ▲간병서비스 1억4000만원 등 복지예산 24억 3000만원을 삭감했고,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비 6억원을 비롯해 농업경영력 강화 및 주민숙원사업 18건도 무더기로 삭감했다.

하지만, 화순군의원들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자신들의 의회 운영예산은 30% 가량 증액하고 관광 성격이 짙은 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 비난을 샀다.

주민들은 "의회의 예산감사와 집행부 견제도 좋지만,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이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라며 "지역발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집행부의 의회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중부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u@



백신 맞는 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안동과 예천, 경기의 파주·고양·연천 등 5개 지역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5일 고양시 성사동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과학 검역원 수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 한달... 농림부 직원 탈진 속출

정승 2차관 밤샘 근무에 체중 4kg이나 빠져

구제역 사태가 한 달여에 이르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이 과로로 탈진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등 고군분투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장관과 차관은 물론 과거 축산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까지 차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24시간 2교대 등 혹독한 업무 강도로 탈진하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의 사령탑인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확산된 뒤, 과천시에서 이를 받아나 새면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한, 정 승 제2차관도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은 물론 수시로 밤샘 상황 체크에 나서 4kg 정도 체중이 빠졌다.

특히, 정 차관은 피곤에 지친 직원들에게 "조급한 더 노력하자"고 독려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관련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의 이

상수 과장은 구제역 때문에 한 달여간 2~3시간 밖에 자지 못해 체중이 8kg나 빠진 끝에 지난 23일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신세가 됐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 출신인 김창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장은 구제역이 발발한 경기 북부지역에 파견돼 2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시 공무원 김찬수씨는 지난 7일 구제역 방역차 밤샘 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락공원 이용요금

지역민 구분해 징수

시민 9만·도민 54만·타지 94만원

전국 최대 장사시설을 갖춘 광주 영락공원이 내년부터 화장장 이용요금을 광주시민과 타 지역민을 구분해 징수하기로 했다. 영락공원 이용자 중 절반 정도가 타 지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용요금을 차별한 뒤 봉안당을 전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화장장 이용요금을 차별화해 광주 시민은 종전처럼 9만원, 전남도민은 54만원, 타 지역민은 90만원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광주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올리기 위한 조치다.

또 그동안 광주시민만 이용 가능했던 봉안당을 내년 초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전국 최초로 부부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봉안당 사용료는 광주 시민 32만원, 전남도민 64만원, 타 지역민 94만원 등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 영락공원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사 시설 안내도우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유공자 생계지원비 월 8만원

전남도 1월부터 인상 지급

전남도는 26일 저소득 5·18 민주유공자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전남도는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저소득 유공자를 대

으로 생활지원금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5·18 유공자 624가구중 388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계지원비 인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5·18 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개구부' → 열린곳, '그린에코포트' → 친환경 향만, '모패' → 씨조개

전남도 어려운 행정용어 '우리말로...'

'개구부, 산림바이오매스, 모패, 무의도서, 신수종산업' 등 사업이나 정책 명칭에 쓰이는 어려운 행정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전남도는 2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여 온 어려운 행정용어 40개를 일반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구부'는 열린 구역 또는 열린 곳으로,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자원, '그린에코포트'는

친환경 향만, '모패'는 씨조개·종자조개, '모조'는 종자해조류·씨해조류, '메포'는 씨벌집,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 '모터스포츠'는 자동차경기, '가금류'는 사육조류, '무의도서'는 의료기관 없는 섬, '신수종사업'은 유망사업, '그린스타트'는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바꿔 사용한다.

전남도는 이번 용어 정리에 국립국어원 김형배 연구원 등 행정용어 순화지원위원 3명을 참여시키 등 알기 쉬운 행정용어 사용

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립국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운 행정용어 정비를 추진해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용어 발굴 실적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지금까지 발굴한 용어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해 도와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부터 행정용어 작성시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北, 내년 서해5도 직접 침공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안보전략연)은 26일 "내년에는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전략연은 이날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연평도 군사 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계 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 개발과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함에 따라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 테러,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전략연은 또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내년에 3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7~31일 해상사격훈련
흑산도 남서방 등 23곳

군 당국이 올해 마지막에 전국 해상 20여 곳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항행정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7일부터 31일까지 동해의 서해, 남해 23곳에서 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서해가 격렬비열도 북방, 안마도 남서방, 미여도 근해, 흑산도 남서방 등 12곳으로 가장 많고, 동해는 거진 동방, 포항 동북방, 울릉도 근해 등 5곳, 남해가 육지도 남동방, 서귀포 근해, 거제도 남동방 등 6곳이다. /연합뉴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은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시공전 → 시공후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람에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団法人 星谷 傳統文化 研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 · 鑑定 専門 哲學 院 010-7671-5623
위 치 :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거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